

산 수 유 나무(2)

1. 식재적지 및 식재방법

지난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수유나무의 분포상태는 전국적이며 환경조건에 대하여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로서 비옥한 곳이 알맞다.

산지(山地) 식재일때에는 산의 계곡부나 산록부가 알맞고 야산개간지나 밭둑과 같은 공한지에 좋다.

산수유나무는 수성이 왜성에 가까운 교목성이므로 식재시 식재거리를 미리 조절할 필요가 있다.

즉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는 결실기의 수세 입지조건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집약적인 재배를 전제로 할때에는 5m×6m인 방형식재를 하게 되어 1정보당 333본을 식재할 수 있고 개간지나 산지와 같이 비옥도가 낮으며 조방적인 재배를 할 장소이면 5m×5m인 정방형식재로서 1본당 차지하는 점유면적은 25m²로서 1정보당 400본의 묘목수가 들게 된다.

식재시기는 다른 수종과 같이 춘식을 원칙으로 한다.

남부지역에서는 추식을 하는 수도 있으나 중부 이북지방에서 추식을 하면 봄의 서릿발의 해를 받거나 또는 겨울의 찬바람의 해를 받게

됨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춘식을 한다.

춘식은 봄 일찍기 해빙과 더불어 실시하면 활착 성장 및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심는 구덩이는 춘식일 때는 가급적 가을에 파두면 편리하다.

특히 산지 숙전이 아닌 개간지 식재시는 가을에 구덩이를 파놓으면 풍화작용에 의하여 토양의 분해를 촉진 및 살균을 할 뿐만아니라 봄에 일손이 모자라는 시기를 피하게 되는 이점도 겸하게 된다.

구덩이의 크기는 깊이는 깊게 약 90cm 넓이는 60cm로 파고 완숙된 퇴비를 구덩이당 6~7kg를 넣고 흙을 약간 덮고 복합비료 50kg를 흙과 섞어 퇴비위에 넣고 다시 약간의 흙을 덮고 그 위에 묘목을 식재하게 되는데 묘목식재시 특히 유의할 점은 묘목의 뿌리목 부위 까지만 식재할 일이다.

식재후 비가 오고 얼마동안 경과하면 식재한 곳이 가라앉아 물이 고이기 쉬운데 식재시 구덩이의 깊이와 묘목의 뿌리부분을 잘 가름하여 심도록 함이 안전하다.

2. 사후관리

식재후 사후관리를 열매가 맺는 성장한 나무에도 계속 필요하다.

즉 식재직후의 활착과 더불어 계속적인 하에작업(下刈作業)과 추비주기 수형조절 및 각종 병충해구제등 여러가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실시공정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임하게 되면 손 쉽게 할 수 있다.

관리중 첫째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시비문제를 들 수 있다.

시비는 활착후 계속 성장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데 산의 계곡부나 개간지에서 재배지에 있어서는 특히 인위적인 비료공급을 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7~8년생까지는 열매수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성장에 필요한 질소질 계통의 비료를 추비로 주고 결실하는 시기부터는 인산 가리질 비료를 중점적으로 시비토록 한다.

따라서 어떠한 비료를 주던지 성장과 결실량등에 따라 시비량을 결정토록 하여야 하는데 식재후 3~4년생의 어린 나무에는 그루당 복합비료 50gr 썩을 시비하고 수령이 많아짐에 따라 100~150gr씩 연년 계속하는데 시비시기는 해빙과 더불어 나무주위를 파고 준다.

늦어도 6월이전에 시비하데 가장 긴가지의 끝보다 약간 밖으로 구덩이를 파고 준다.

어린묘목을 식재하고 관리로서 중요한 한가지는 묘목주위의 잡목이나 풀의 피압으로 인한 묘목성장을 방해하는 잡목등을 제거하는 하에작업을 연2회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단지재배를 위한 집약경영일때 특히 중요하여 식재후 4~5년간 계속함이 좋다.

재배지가 크게 경사가 심하지 않은 개간지 같은 곳에 있어서는 다른 식용작물을 재배함으로써 2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 하에작업은 6월 중순과 8월 중순의 연 2회 실시하도록 한다.

다음은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개화 결실하여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수형을 잘 조절하여 수관내의 광선의 침투와 통풍등이 좋아야 개화 결실이 좋게 됨으로 수형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산수유나무는 중교목성(中喬木性)임으로 어려서 부터 수관내부로 곱치는 가지는 절단하여 주며는 수세가 고루게 또 왕성하게 성장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

수형만드는 시기는 봄 일찍 수액이 유동하기 직전인 2월중순부터 3월초에 걸쳐 톱이나 전정가위로 나무에 심한 상처를 주지않도록 하며 절단하도록 한다.

끝으로 한가지 중요한 관리문제는 병충해구제문제이다.

산수유나무의 병충해는 다른 나무와 같이 심하지는 않지만 잎마름나방, 좀나방과 갈반병 등이 일부 나타난다.

잎마름나방은 5~6월경 잎을 말고 잎속에서 잎을 갈가먹는 해충으로 마라치온 또는 디프테렉스 1,000 배액을 2~3회 살포하면 된다.

갈반병은 잎에 갈색 반점이 나타났다가 점차 확대하여 나중에는 말라 죽고 만다.

주로 여름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다이젠 1,000 배액을 수회 살포하여 갈반병발생을 예방 또는 구제한다.

다음 산수유나무 좀나방은 8월 상순에 산수유과실에 산란하여 과실속에 들어가 과실의 조기낙하를 이르기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열매를 맺게하는 단점이 있다.

산란기에 마라치온 700~1,000배액은 수회에 나누어 살포하여 주면 효과적이다.

3. 수확 및 경제성

산수유나무 재배목적은 정원이나 농가 부근에 한 두그루식재 할 때에는 정원수로서 그 관상가치를 따질 것이고 적어도 10그루이상 일정한 넓이를 갖이고 식재할 때에는 산수유열매의 약효를 위하여 재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의 관상가치로서의 산수유나무는 가 지나 수세가 반성의 중교목이고 잎이 가지에 맞붙어 있고 약간 둥근 타원형으로서 수형이 보기에 좋을 뿐아니라 꽃이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황백색으로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데 한 곳에 20~30개가 군상으로 피어 보기에 아름답다.

열매는 가을에 가서 붉은색으로 또한 아름다우며 개화기가 20~30일가량으로 길어 가끔 초봄의 늦눈으로 피해를 보는 수가 있다.

약용으로 쓰이는 산수유는 열매의 핵과(核果) 중 종자를 제거한 과육을 건조하여 이용하는 것인데 농촌에서는 열매 하나 하나 입으로 씨를 발라내는 불편이 있어 농촌의 부녀자들의 많은 일거리가 되고 있다.

약용으로 쓰이고 있는 과육은 몰식자산(沒食子酸) 임금산주 석산등이 함유되고 있어 주로 강장제 치요술(治腰膝), 월경과다등 여러가지 한방에 사용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남아 제국에 최근 10여만불에 달하는 수출고를 보고 있다한다.

또한 근년에는 목목도 다량 일본으로 수출된 실적도 있는 것이다.

이제 산수유열매 수확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2년년생으로 식재하여 5년이면 약간씩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확할 수 있으려면 7~8년생부터라고 볼 수 있다.

열매의 최성기는 40~80년생으로 100여년이 훨씬 넘는 나무가 많다.

결실량은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으나 주로 지역별 및 경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필자가 조사한 경기도 이천지방의 것은 좋은 곳에서 비교적 잘 자란 40년생 한그루당 약 1가마의 건재를 생산할 수 있는데 건재 1가마면 약 45근으로 가격은 파는 형태 또는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른데 직접 씨를 발라내어 근당 약 800원 따라서 40년생 건재로 45근을 생산한다고 할 때 약 36,000원의 조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있데 입목(立木)채로 선매하는 경우는 반감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손이 있는 곳에서는 직접 열매를 채취하여 씨를 빼 두었다가 겨울에 팔면 가장

안전하게 팔수 있다고 봐진다.

다음은 1972년도에 경기도 임업시험장에서 경기도 양평균 열매에서 조방적으로 조사한 숫자를 인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품질이 우량한 산수유를 생산하려면 열매의 채취시기를 알맞게 하고 채취된 열매는 씨를 빼낸후 일정하게 건조시켜야만 좋은 약제로서의 산수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앵두크기 만한 종자는 약간 건조인때 중부지방에서 11월 상순경 서리가 온후 검붉게 성숙된 것을 채취하여 일광이나 온돌방에 3~4일간 건조시켜 약간 주글 주글한 상태에서 과실을 눌러 짜면 씨가 쫓아져 나온다.

일부에서는 건조시키기에 번잡하므로 솥에 약간 찌서 입으로 일일히 씨를 발라내기도 한다.

양묘할 종자는 솥에 쪄 종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같이 씨를 제거한 과육은 다시 일광에 잘 건조시켜 함수율 약 19%까지 말리는데 이를 포장하여 시판한다.

보통은 상인이 현지에서 구입해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1ha당 400본 식재하였을시 성과기인 50년을 기준할때 약 200본으로 추산하더라도 전기 수확표에서 보드라도 1본당 10,000원 수입한다고 할때 약 2,000,000은 보장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수유 과육 생산량은 대략 100톤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30~60톤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다.

상기표에서 보면 동남아각국은 거의 모든 나라가 산수유를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가주변의 관상가치로도 좋을 뿐 아니라 열매 수입도 큰 것으로 어느 수종보다도 재배가 용이 함을 알 수 있다.

※ 월간양계 합본

(8. 9. 10권)

연락 : 중구 양동 44~28

수령별 수확 예정량 (1주당)

수령	수확량	kg당 가격	총액	비고
7~8년생	0.7kg	500	350원	기건상태임
10	1.0	500	500	
15	3.0	500	1,500	
20	7.0	500	3,500	
30	15.0	500	7,500	
50	20.0	500	10,000	